2020 YK 공익 사단법인
옳음(ORUM) 공익활동보고서

2020 ORUM PRO-BONO REPORT

YK공익사단법인
옳음 ORUM

옳음의 가치를 향해 나갑니다

2020 YK 공익 사단법인
옳음 공익활동 보고서

CONTENTS

인사말

03 YK 공익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박시환

발간 인터뷰

04 YK 공익 사단법인 옳음 대표변호사 강경훈
05 [특별기고]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옳음소개

08 활동 목표 및
조직 구성
09 활동 영역

2020 공익활동 이야기

11 2020년 옳음의 주요 순간
13 공익 법률 상담
14 공익 소송 활동
15 공익 단체 활동
16 공익 강연
17 장애인권 지원 활동
19 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
20 아동 및 여성 인권 지원 활동

APPENDIX

22 언론 보도
23 나에게 공익활동이란?
25 회원 명단
26 후원 안내

인사말

YK 공익 사단법인 이사장

“

2020년 4월,

법무법인YK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을 출범하였습니다

”

사단법인 옳음은 대형로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법무법인 YK가 공익인권활동을 목적으로 올해 3월 출범시킨 공익법인입니다.

옳음은 노동 인권, 군 인권, 여성 및 소수자 인권, 장애 인권, 동물권 및 환경 보호, 아동 인권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인권옹호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옳음은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올 한 해에 적지 않은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한계로 인하여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옳음은 올해 자체 구성원들의 공익의식 증진을 위한 초청강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법률상담,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과의 업무협약 체결, 발달장애인들의 재활농장에 대한 봉사활동 및 후원금 전달,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및 멘토링 프로그램 수행, 미혼모·부의 아기들을 위탁양육하는 교회에 대한 후원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활동 등이 참작되어 옳음 이사장인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여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옳음의 ‘청소년 진로지도 멘토링 및 취약계층 가정 법률상담 활동’이 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의 ‘청년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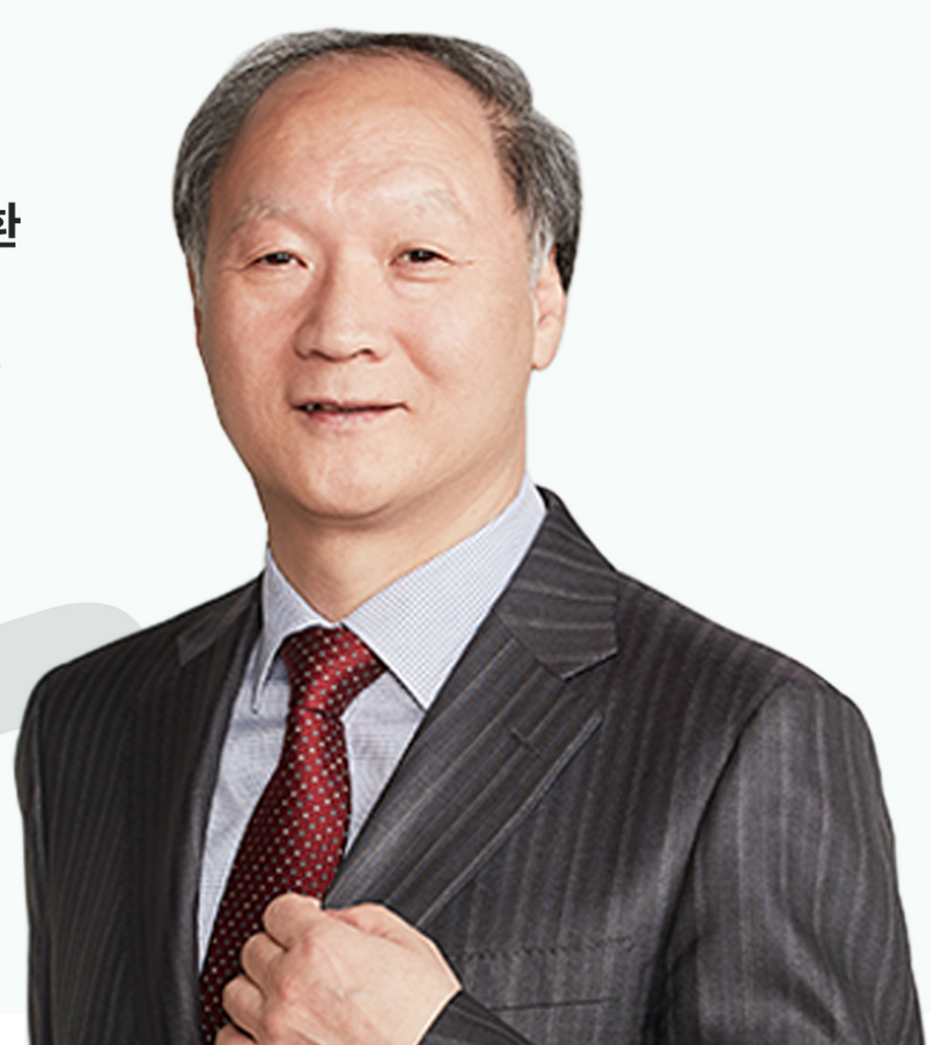
옳음은 이제 막 출범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아직 체계적이고 드러날 만한 활동을 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만간 그 설립취지에 합당한 활동과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신 옳음 구성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법무법인YK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며, 내년에도 많은 지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K공익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박 시 환

박 시 환



orum

발간 인터뷰

YK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강경훈



> 자율적이고
> 즐거운 공익활동을 위해
> 노력하겠습니다

Q.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 중 한 분으로서 사단법인 옳음의 창립부터 활동까지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느끼신 감회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8년 전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쉼 없이 달려오면서 '말과 글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명은 나름대로 충실히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소명의식을 소속 법인 내 변호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확장시켜나갈 수 없을까 하던 고민 끝에 다른 법무법인들이 하고 있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에 대한 생각이 닿았고, 우리 법조계의 훌륭한 어른이신 박시환 대법관님을 이사장으로 모시게 되면서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정돈이 더 필요하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나름의 성과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Q. 법무법인을 비롯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는 요즘,
법무법인 YK에서는 공익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가요?

A. 변호사법에서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인원의 변호사들이 함께 일을 하는 로펌의 경우 그 사회적 책임을 일반 기업보다 더욱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각자 관심있는 공익활동 분야에 소속되게 함으로써 그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법인에서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옳음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우선 사단법인 옳음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박시환 전 대법관님께서 무궁한 관심과 열정으로 사단법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고 계시기에 저로써는 특별히 더 첨언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소속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자율적이고 즐겁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옳음이 아동인권, 장애인권 등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분야에서 공익소송 및 입법지원 활동 등 심화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 외 군 인권 등 기존 법무법인에서 공익활동 분야로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분야들도 살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특별 기고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강일권 전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계에서 변호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가 2019년에135만 명을 넘었다. 미국에서 변호사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전문직이 아니다. 1981년 우주왕복선이 최초로 발사될 때 우주왕복선의 화물칸에 변호사를 가득 싣고 가 우주에 버리는 만화가 잡지에 실렸다.

그 만화에는 '우주왕복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임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비하하는 유머가 매우 많고 인기도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세상에 변호사 관련 유머는 3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유머가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도 있다.

변호사는 가장 나쁜 이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 시민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를 찾는다. 그래서 변호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다. 미국 시민들이 우주에 내버리고 싶어 하면서도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있어서 의뢰인의 정보를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점이다. 톰 크루즈가 변호사로 출연한 '야망의 함정'이라는 영화가 있다. 존 그리샴의 소설 '더 펌(The Firm)'을 원작으로 만든 작품인데, 여기서 톰 크루즈는 마피아를 돕는 로펌에 고용되었다가 곤욕을 치른다. 마피아의 불법행위 증거를 FBI에 넘겨주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하면 의뢰인 비밀 누설이라는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의뢰인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변호사는 그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주는 변호사의 특권은 법원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미국 시민들이 변호사를 찾는 두번째 이유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가 많고 이들은 보수의 많고적음에 관계없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다크 워터스(Dark Waters)'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로 변신한 헐크(마크 러팔로)는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경력은 물론 아름다운 아내 앤 헤서웨이와 가족들 모두를 건 용기 있는 싸움에 나선다. 20년에 걸친 소송 끝에 거대 화학회사인 듀폰사가 유해 화학물질을 함부로 버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밝혀지고 주민들은 피해를 배상받는다. 이 영화에는 화학물질로 인해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실제 피해자가 주유소 직원으로 직접 출연한다(그의 어머니는 듀폰사의 직원이었다). 결과는 승소로 끝났지만 주인공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른다.

이런 변호사들이 미국의 법조계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욕을 덜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사법시험제도가 판검사 양성에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변호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아직 어느 정도 공적 역할을 하는 법률전문가로 대접받고 있는 듯하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정착되고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런 인식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2년에는 우리나라도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한다. 그때 변호사를 우주선에 태워 달로 보내버리자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정착되고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런 인식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2년에는 우리나라도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한다. 그때 변호사를 우주선에 태워 달로 보내버리자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이런 변호사가 동료 시민들로부터 미움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제는 법에 따른 사명을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변호사가 늘고 있는 데 있다. 한계에 다다른 송무시장과 변호사 고용에 소극적인 기업문화 등으로 많은 변호사가 생존경쟁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사명만 부르짖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변호사에게는 엄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지만 미국 변호사와 같은 강력한 특권이 없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돈 되는 의뢰인만 찾아다니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법은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정 시간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강제로 하라고 하면 재미 없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재미 있기 어려운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려면 더 힘들어 지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일정 시간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는 법을 공부한 법률전문가다. 법을 공부할 때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하였다. 생활인으로서 변호사는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지만,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는 최소한의 공익활동을 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통해 정의감이 녹슬지 않도록 유지하면, 변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변호사는 더욱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즐길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정의사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옳음 소개

활동 목표

조직 구성

활동 영역

활동목표

ORUM

옳음은 서초동 소재 로펌 중 최초로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한 번 더 생각해 '더불어 나누며 함께 드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자 법무법인 YK에서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입니다.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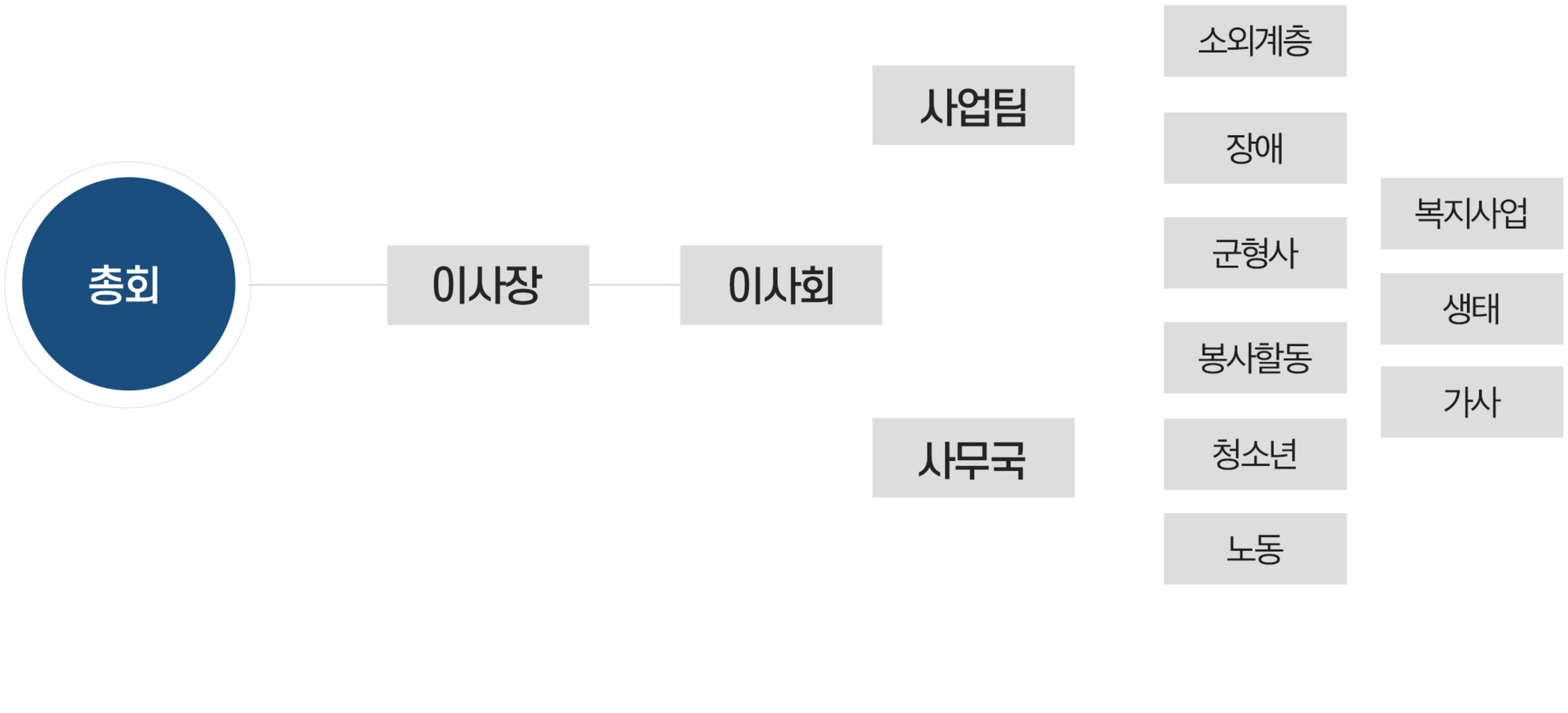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YK와 공익사단법인 옳음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프로보노(Pro Bono) :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

변호사법 1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직구성



활동영역

옳음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6개 분야를 중점으로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정책개선 및 입법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노동

군(軍)

동물/
환경보호

장애

아동

여성/
소수자



2020

공익활동 이야기

2020년 옳음의 주요 순간

공익 법률 상담

공익 소송 활동

공익단체 활동

공익 강연

장애인권 지원 활동

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

아동 및 여성 인권 지원 활동

2020 옳음의 주요 순간

옳음의 한 해 보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MOU 체결

20년 8월 6일,
우수 법조인력의 양성 및 지역사회의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사업을 위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창립총회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하고
박시환 전 대법관님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주요의안을 심의함으로써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03

설립인가

사단법인 옳음은 주무부처인 법무부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증진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04

08



옳음 공익강연 개최

공익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염형국, 임성택 두 변호사님들의 강연을 통해
공익법률 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옳음 공익강연 개최

성년후견 분야의 권위자이신
박인환 교수님과 활발한 기부 활동 및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헌하고 계신 김철호 회장님을
통해공익법률 활동의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공부방
청소년 진로지도 멘토링 활동

관악구 소재 지역아동센터인
우리들의 공부방 소속 학생들에 대한
진로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여 법과
법조인의 역할을 소개하고 지속적
멘토링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



박시환 이사장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옳음의 이사장이신 박시환 전
대법관님께서 사법개혁과 후학
양성, 사회공헌 등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1





푸르메 스마트팜 봉사활동

남양주 소재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활농장인 푸르메
스마트팜에서 후원금 전달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12



위기아동 위탁양육 활동 후원식

위기아동 위탁 양육 봉사를 하고 있는
생명의 샘 교회를 방문하여 후원활동을
하였습니다.

청년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 프로젝트 지원사업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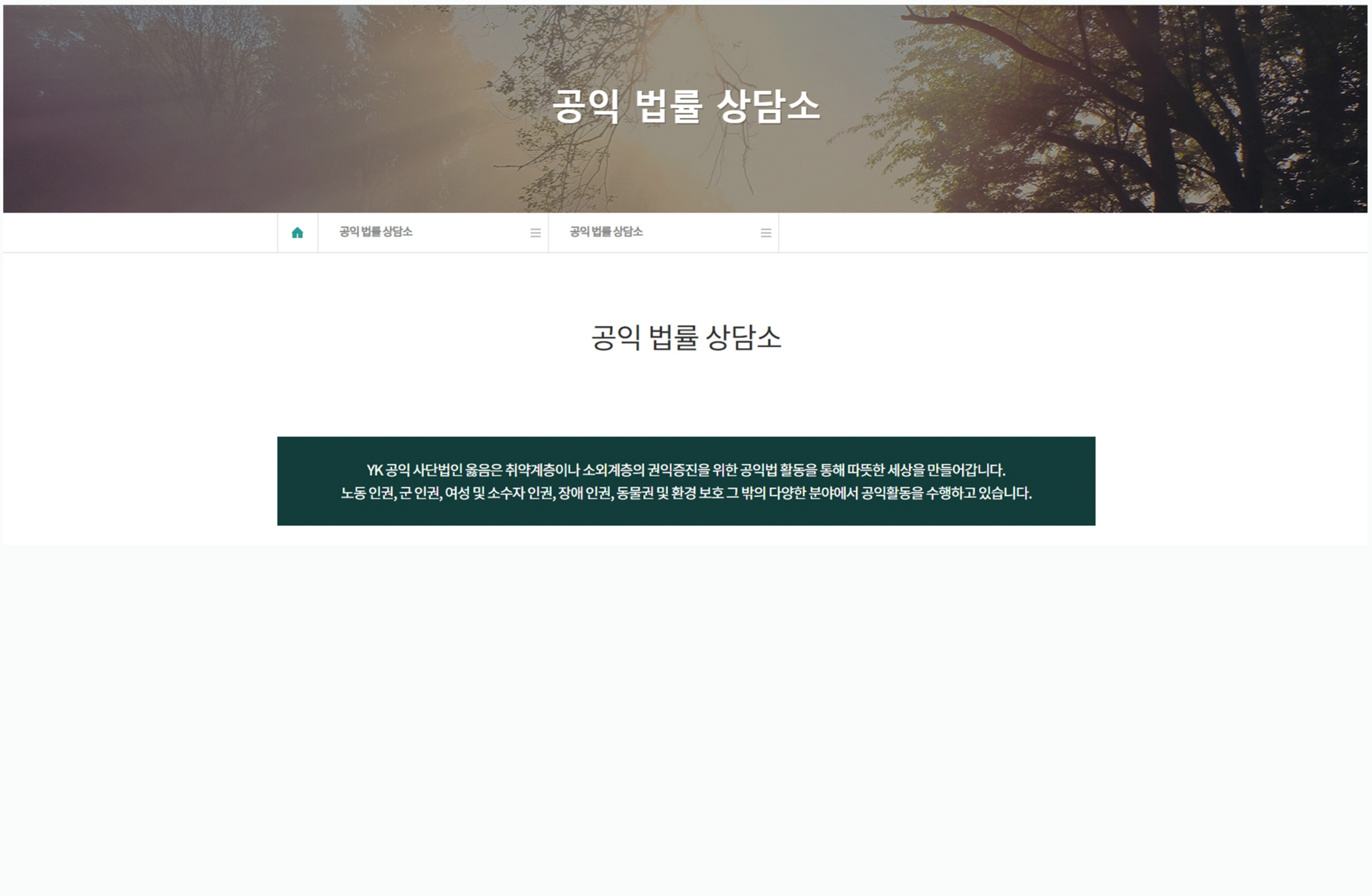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법조공익
재단법인 사랑샘의 청년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익 법률 상담



옳음 홈페이지 '공익 법률 상담소' 게시판을 통한 공익법률 상담

옳음의 법률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법률 소외계층들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익명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권, 군 인권, 여성 및 소수자 인권, 장애 인권, 동물권 및 환경보호 등 전통적인 공익인권 법률 분야 뿐만 아니라 기타 그 목적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이며 즉각적인 법률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담을 넘어서 소송을 통한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익소송으로 선정해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 소송 활동

수행사건 내용



노동 인권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측으로 부터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받게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등을 진행한 사건



군 인권과 관련하여,

- 고위간부에 의한 강제추행 및 그 피해사실의 인터넷 유출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 군인을 대리하여 재판절차 진행을 대리한 사건

- 징계 재량을 일탈, 남용한 지휘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군인을 대리하여 고소 등을 진행한 사건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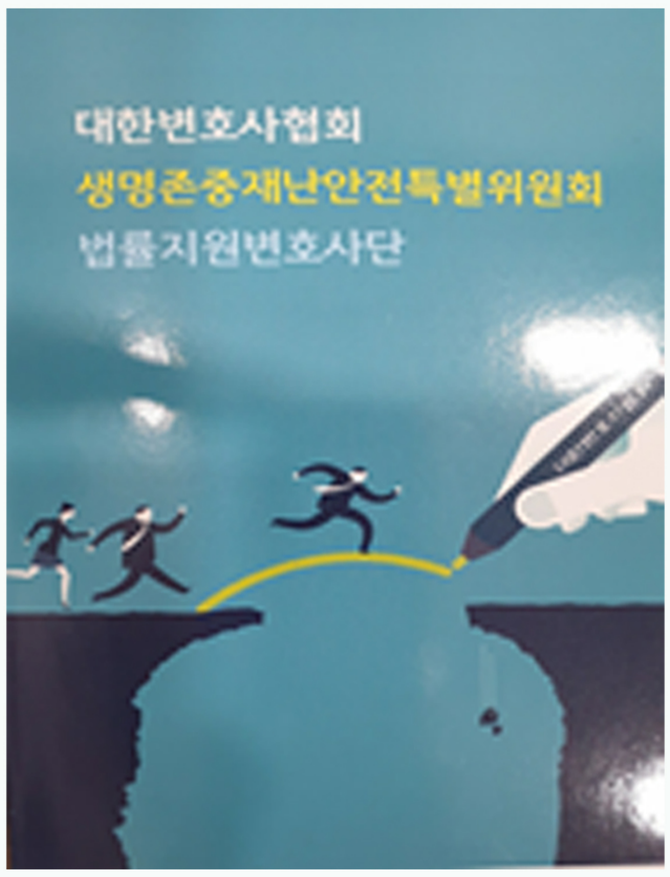
연인 관계였을 당시 찍힌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한 사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익소송 활동'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는 사건들을 수행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 활동





재난 피해자 지원 및 재난상황 인권교육

2020년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19라는 유래 없는 재난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특히나 새로운 인권문제 및 가치 충돌적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한 해였습니다. 사단법인 옳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활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 "재난, 인권, 법" 전문과정 수강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재난이 야기하는 인권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미니 인터뷰



허민강 변호사
법무법인 YK

저는 법무법인 입사 전 법무관 업무를 하면서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여러 사회적 참사가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기는지 간접적으로 접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 방역활동과 관련 확진자들의 이동동선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집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재난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사단법인 옳음의 지원을 통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의 "재난, 인권, 법"이라는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수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생명안전법률지원 변호사단"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익 강연

공익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공익강연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구성원들의 공익, 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촉구와 각 구성원의 전문분야와 연계한 공익활동의 장려를 위해 각 분기별 1회 이상 <옳음 공익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① 공익인권법재단의 염형국 변호사, ②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대표변호사, ③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 ④ 한국아이팩조정중재센터 및 한국링컨협회의 김철호 회장님을 초청해 공익법률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별로 진행된 매 강연마다 20명 이상의 옳음 및 YK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공익법률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 활동 어떻게 하는가

2020. 4. 16. 제1회 공익강연

2020. 5. 7. 제2회 공익강연

법우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로펌의 공익활동 방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성년후견 제도의 이해와 활용

2020. 8. 7. 제3회 공익강연

2020. 10. 22. 제4회 공익강연

한국아이팩조정·중재센터 회장 김철호 기부와 용서의 경제학

미니 인터뷰



김채민 변호사
법무법인 YK

저는 평소 여성인권, 장애인권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행동하기보다는 그저 개인으로서의 실천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옳음의 공익강연을 통해 여러 공익법률 분야에서 활동해오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회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 역시 변호사로서 인권과 공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권 지원 활동


YK 공익법인 옳음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청년 희망일터 일손 나눔”
법무법인YK
YK공익사단법인
옳음 ORUM
푸르메재단

푸르메 스마트팜 후원 및 봉사

서울시립 기관인 푸르메 스마트팜은 비영리 공익 재단인 푸르메재단에서 운영을 맡아 발달장애인 15명의 영농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으로 발달장애 청년분들의 손길과 ICT 기술이 합쳐져 '풍요로운 치유농원' 이라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및 사단법인 옳음의 소속변호사들은 발달장애 청년들의 새로운 자활 모델이 될 수 있는 푸르메 스마트팜의 취지에 공감하여 직접 위 농장을 방문하고 후원금 전달 및 일손나눔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미니 인터뷰

저는 법무법인 입사 전, 경찰에서 근무하며 관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직업재활학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체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러한 시설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작업장의 크기나 시설이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작업의 내용도 단조로워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푸르메 스마트팜에 가 보니, 넓은 대지에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어 작업자들의 신체활동이 충분히 보장됨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또한 작물들을 활용한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여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앞으로가 기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옳음의 변호사로서,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뜻깊었습니다. 장애인 인권 개선이나 자활, 직업활동 등이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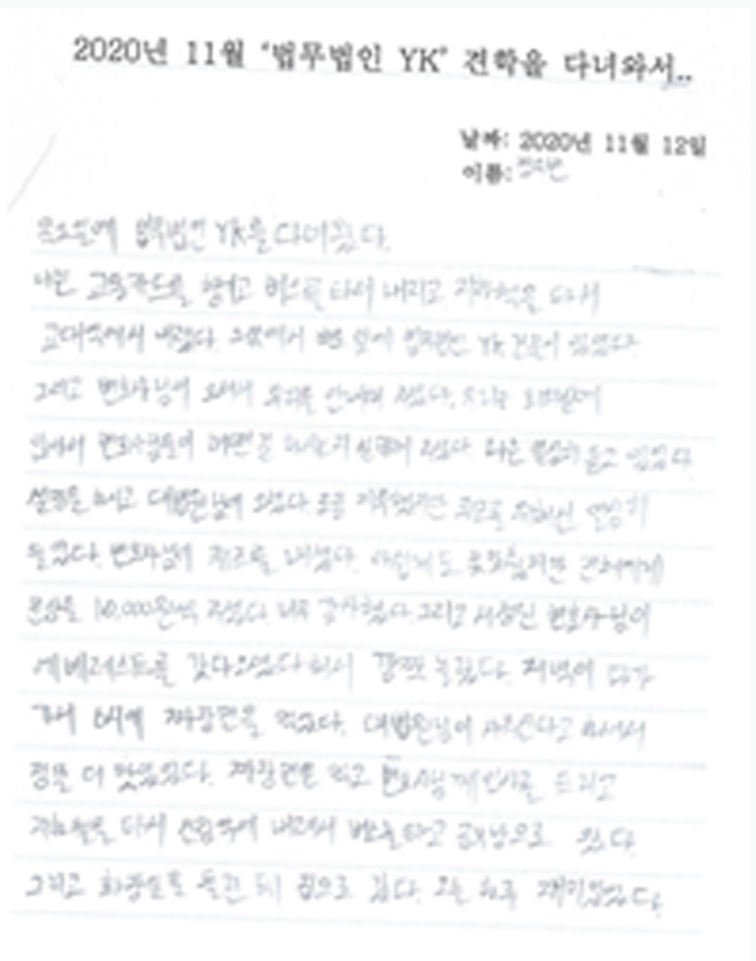
아울러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및 개인 후원 문제, 생산물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음의 소속 변호사로서 앞으로 실질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YK

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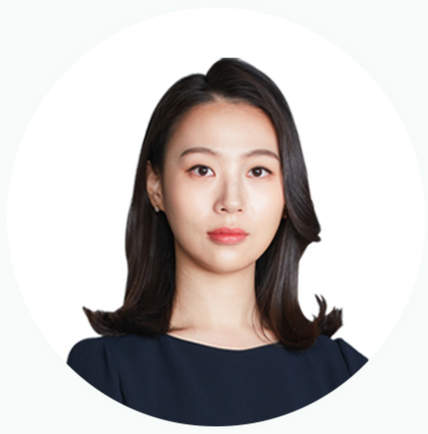

2020년 11월 '법무법인 YK' 견학을 다녀와서..

날짜: 2020년 11월 12일
이름:

'우리들의 공부방' 업무협약 및 청소년 진로지도 멘토링

' 우리들의 공부방 ' 은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복지센터로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편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한부모 가정 내지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만큼 다른 아동들보다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접하고 적절한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미니 인터뷰



나인경 변호사
법무법인 YK

저는 대학생 때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교육봉사를 하면서 취약계층 아동들은 진로 탐색 기회가 적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동들에게 진로 고민 상담을 해주었으나 저 역시 아직 학생이었기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옳음 덕분에 이제는 변호사로서 아동들과 진로 멘토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공부방' 아동들이 법무법인을 견학하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가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던지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아동들이 법과 친해지고, 조금 더 넓어진 세계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옳음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및 여성 인권 지원 활동

위기 영·유아 위탁양육 '생명의 샘' 교회 후원 활동

사단법인 옳음은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곤경에 처한 미혼모·부를 대신하여 그들이 자립할 때 까지 아기들에 대한 위탁양육 봉사를 수행하는 생명의 샘 교회에 대한 후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법무법인 YK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던 유아용품들을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연말 분위기와 결합하여 아기들에게 이름 없는 산타클로스가 되어주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미니 인터뷰

저는 이번에 사단법인 옳음이 후원하고 계시는 생명의 샘 교회 후원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샘 교회는 어린 미혼부모의 아기들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봉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이어서, 양육환경이 마땅치 않아 아기들을 직접 보육할 수 없는 어린 미혼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후원활동을 통하여, 생명의 샘 교회 목회자 및 봉사자분들이 아기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봉사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사단법인 옳음에서 유아용품들을 기부하셔서 생명의 샘 교회 목회자분들과 아기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번 봉사를 계기로 저도 공익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는 사단법인 옳음의 공헌 활동을 계속해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김동섭 변호사
법무법인 YK

APPENDIX

언론 보도

회원 명단

나에게 공익활동이란?

후원 안내

보고서 정보

언론보도

로이슈 2020-04-10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 출범…대법관 출신 박시환 석좌교수 합류

법무법인YK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을 출범한다. 17일 법무법인YK의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에 따르면 옳음의 공익활동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룬다.



법률신문 2020-04-22

법무법인 YK,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 출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는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을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옳음은 노동, 여성, 동물권, 환경 등의 이슈를 다루는 동시에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20-05-14

박시환 전 대법관 인터뷰

우리 변호사님들이 사회 곳곳에 법의 정신, 법의 이념이스며들 수 있도록,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일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법률신문 2020-11-12

박시환 옳음 이사장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박시환 옳음 이사장님께서 대한변협이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게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법률신문 2020-12-28

사단법인 옳음 '청소년 진로지도 멘토링 및 취약계층 가정 법률상담 활동"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로 선정

박시환 옳음 이사장님께서 대한변협이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게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나에게 공익활동은?

공익활동은 **향수** 다.

무미건조한 내 생활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붕어빵** 다.

추운 날 나누는 온기이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꽃**이다.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비타민** 다.

일에 지칠 때 의미와 활력이 된다.

공익활동은 **사랑니 빼기** 다.

하기 전엔 자꾸만 미루게 되지만
하고 나서는 왜 더 빨리하지 않았을까
후회되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전기** 다.

추운 날 나누는흐르고 흘러 빛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온기이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위로** 다.

오히려 내가 나눔을 통해 느낀
따스함으로 치유 받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방학숙제** 다.

때론 귀찮기도 하지만,
하고 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거울**이다.

나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디저트 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미래 다.

조금 더 노력할수록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친한 친구 다.

매일 만나지는 못해도
항상 마음 속에 있고,
만나면 기분 좋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빚갚음 다.

지금껏 사회로부터 받은
귀한 혜택을 어른이 되어
조금씩 천천히 되돌려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선물 다.

너와 나,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백신 다.

사회가 병들지 않게
막아 주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가슴기 다.

메말랐던 삶이 공익활동을 통해
나의 삶, 나아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삶을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단백질 다.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체격이 커지듯 공익활동을 해야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칼슘비 다.

티는 안나도 하고 나면
기분 좋기 때문이다.

회원명단

강경훈 강규상 강상용 강예리 강천규 곽태영 구헌재 권영서 김국일
김동섭 김민수 김범한 김병엽 김상헌 김승헌 김신혜 김아름 김의택
김채민 김태환 김혜림 나인경 노윤형 민지환 박순범 박시환 박 찬
배연관 서정우 서정원 오철환 유상배 은지민 이동곤 이동균 이명헌
이민우 이상환 이선영 이선우 이응돈 이지용 이창민 이형근 정용선
정용하 장정훈 조동주 조인선 최경진 최동준 한대봉 함진규 허민강





보고 기간 및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관련 정보

보고서는 국문으로 발간되었으며,
YK 사단법인 옳음(http://www.ykorum.com/orum/)을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옳음의 활동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옳음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38, 5층 (우림빌딩)
지번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3-3 우림빌딩
Tel 02-533-0325
Email orum@yklaw.net

YK공익사단법인

옳음 ORUM

메모